

제23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원식)

해운대구의회사무국

2018년 7월 3일 (화) 오후 2시

제23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연령에 대한 묵념
1. 개원사
1. 축사
1.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박현주)

○의사팀장 박현주

(14시 01분 개식)

지금부터 제8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연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의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서 계시고,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및 방청객 착석)

이어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과 함께 복창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자리에 두시면 사무국에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선서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 7.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이명원 임말숙 김경호 문현신 김정욱 원영숙

김상수 최은영 김백철 박성식 장성철 박기훈

이상곤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김혜진 정순세

○의사팀장 박현주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명원

존경하는 42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해운대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해운대구의회 전반기 의장 자격으로 뜻깊은 개원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8대 해운대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구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해운대의회는 지난 1991년 개원 이래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의 값진 노력의 결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며 42만 해운대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여왔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더 창의적이고, 더 모범적인 의회가 되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제 제8대 의원님들은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청렴하고 반듯한 위상을 지닌 분들이 오신 만큼 더욱더 활발하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 그리고 현안 과제들을 슬기롭게 대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가 발로 뛰는 실천 의정과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문 의정 등 한 차원 높은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마음을 읽고, 뜻을 소중하게 받드는 일은 여와 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민을 위해 여러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해운대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42만 구민의 염원을 담아 명예롭고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발하는 만큼 우리 제8대 해운대구의회가 소통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해운대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잘 굴러가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같이 짊어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이 걸어가고 있는 동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많은 갈등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가 쌓여있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신뢰와 존경 속에 따뜻하고 안전하며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해운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구정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구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혁신과 협치를 대원칙으로 정하여 더욱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언제나 같은 의견일 수는 없겠습니다. 서로 간의 이견을 인정하고, 절충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완성해 내고, 해운대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구민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우리 의원 모두는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고, 주민 중심의 편의를 제1의 가치로 삼는 주민 최우선의 의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은 무조건 편들거나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나 구민의 깨어있는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는 42만 구민이 주신 가장 고귀한 우리 구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2만 구민 여러분이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고, 법치와 인권이 존중받는 해운대에서 오늘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의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과 해운대구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클 때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가 값진 결실로 승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의회가 진정한 의회로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 역시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현주

계속해서 홍순헌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홍순헌

반갑습니다. 우선 축사에 앞서서 저와 함께 구정을 이끌어갈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 구 청 장 박 찬 민
 행 정 관 리 국 장 이 창 현
 일 자 리 산 업 국 장 백 종 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회 신
 안 전 도 시 국 장 이 장 언
 보 건 소 장 조 봉 수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제8대 해운대구의회 개원을 41만 해운대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민의 바람과 신뢰 속에서 당선되신 모든 의원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991년 개원 이래 해운대구민의 복리증진과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역량을 쏟아 오시고 평소 해운대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누구보다도 넘치는 분

4 (제234회-개원식)

들이신 만큼 이번 제8대 의회는 민선7기 집행부와 함께 우리 해운대구의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리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구의회와 집행부는 41만 해운대구민의 뜻을 모아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운대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해운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해운대지역 간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자족형 도시재생사업, 센텀2지구 조성 등으로 균형·동반 성장에 힘을 쓸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함께 가중되어온 교통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서 나아갈 것입니다. 해운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운대터널과 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동서 불균형 또한 해소될 것입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기본부터 탄탄한 안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내 아이가, 우리 가족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머물고 싶은 관광지,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명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해운대 구석구석에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관광객의 접근성도 높이겠습니다. 이로써 관광도시 해운대의 위상이 지역 경제에 골고루 분배되어 신선한 활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는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년층에게는 재취업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모든 세대가 어깨 펴고 새로운 꿈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웃끼리 서로 도와 소외된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출산부터 보육을 넘어 평생교육까지 교육격차 없고, 행복지수 높은 해운대를 조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서로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민원과 의견을 직접 듣고 고민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구정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 항상 마음의 눈을 열고 주민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 이를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41만 해운대구민과 더불어 제8대 해운대구의회의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해운대구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구의회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현주

이상으로 제8대 해운대구의회 개원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9분 폐식)